



## 과 학 기 술 부

### “원자력 국제공조 지속 추진”

**채** 영복 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한국 원자력산업회의(회장 강동석) 주최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2003년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 원자력사업의 올해 당면과제로 ▲원자력 기술개발 영역 확대 ▲국제협력체제 강화 ▲원자력 안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원자력계 산·학·연 지도급 인사 1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채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기술개발로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은 물론,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채 장관은 또한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가 보편화돼야 한다”며 “안전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회장인 강동석 전전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발전,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며 “앞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해 원자력 국제 위상은 물론 국력을 드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 새해 인사회

원자력기술과 산업이 에너지공급 차원을 넘어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술과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원자력계는 원자로 분야, 핵연료 분야, 연구개발 분야, 원자력안전 분야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또한 원자력의 국제간 협력 분야에서는 아시아지역 17개국의 원자력협력센터인 아·태 원자력협력협정(RCA) 지역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했으며, 세계 청소년 원자력과학기술자대회(IYNC)와 세계 원자력발전사업자대회(WANO)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켰습니다. 200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 규모는 지난해 영광 5·6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함으로써 총 18기의 원전을 운영하게 됐으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기관도 1,998개 기관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오늘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원자력계가 보다 관심을 갖고 성취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그동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개발로 더욱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은 물론, 전혀 새로운 원자력기술을 개척하고 타 기술 분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적 가능성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제4세대 국제원자력포럼(GIF)과 같은 미래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협력체제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원자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원자력안전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가 보편화되고, 원자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금년은 21세기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금년 한 해 원자력 기술과 산업이 세계 일류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 제1회 원자력안전마크 수여식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과기부 대회의실에 제1회 원자력안전마크 수여식을 갖고 기술·제품분야에서 한전기공(주)의 '핵연료 로딩 가이드 장치'와 기관(단체)분야에서 한전원자력연료(주)의 방사선 환경실에 원자력안전마크를 수여했다.

이번에 처음 수여된 원자력안전마크는 원자력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원자력 유관기관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써 '원자력안전마크심사위원회'(위원장 신재인)가 지난해 12월 14일까지 공모하여 접수된 14개 기관과 9개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심사했다.

이번에 원자력안전마크를 수여한 한전기공의 '핵연료 로딩 가이드 장치'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핵연료 장전 보조장치'로서 핵연료 변형으로 인한 핵연료의 정위치 장전이 곤란한 단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했다.

과기부는 앞으로 분기별로 안전마크 수상단체 및 기술·제품을 선정해 시상할 방침이며, 상반기까지 시범 실시한 뒤 하반기부터는 선정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법정 마크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곧이어 2002년 원자력안전유공자 시상식을 갖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전의 조병덕 발전과장 등 49명을 시상했다.

이번 2002년 원자력안전 유공자로 선정된 총 49명은 원전운영 부문에 17명, 방사성동위원소 부문에 16명, 원전 방재훈련 부문에 1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수원 월성원전의 조병덕 발전과장이 '올해의 최우수 원자로 조종사'로 선정,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과기부는 원자력 종사원의 사기진작과 원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97년부터 원전안전유공자를 선정, 포상해 왔다.

##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원자력 사고·고장 예방체제를 더욱 공고히해 나가는 한편 과학적·합리적 안전규제제도를 개발·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부는 27일 제23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채영복 과기부 장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원자력안전규제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과기부는 이날 ▲원자력 사고·고장 예방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자력안전규제 제도 개발 ▲세계 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제도 구축 ▲국민 참여형 원자력안전규제 추진 ▲사용자 친화성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체계 강화 ▲국가 방사능체계 기반 마련 ▲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등 7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부는 '1발전소 1주재관' 체제를 구축하고 부지별 전문검사팀을 시범운영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점검'의 날을 매달 시행함으로써 원전 고장 예방체제를 공고히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e-원전안전검사제도' 도입, '리스크 기반 안전검사' 시범 적용, 원자력 안전검

사 요원 보강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부는 또한 신규로 개발된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개발·제정하고 전력 산업기술기준(KEPIC)을 정비·보완하고 원자력안전마크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정보를 보다 적절로 공개하고 원자력안전규제활동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안전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와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용 방사선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부는 또한 방사능방재체제를 더욱 공고히하고 원자력손해배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현장 근무자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 방사선피폭 검사규제 강화

방사선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 검사·평가규제가 대폭 확대됐다.

과학기술부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에 따른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내부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제정, 올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부는 지금까지 외부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해 왔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내부 피폭방사선량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또한 내부 피폭량을 평가함으로써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총 피폭방사량을 종합 관리하고 피폭 저감화 유도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증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내부 피폭평가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작업장의 공기 중 방사능 농도 측정 등의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